

## 원발성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발생한 지신근의 자발성 파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강성식, 박하연, 김예림, 황은아, 한승엽, 박성배

### Spontaneous Rupture of Extensor Digitorum in a Patient with Primary Amyloidosis

Sungsik Kang, Hayeon Park, Yaerim Kim, Eunah Hwang, Seungyeup Han, Sungbae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idney Institute

**배경:**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은 말기콩팥병의 원인 질환의 하나이며, 다양한 장기에 아밀로이드 섬유가 침착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섬유가 침착된 장기의 자발성 파열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비외상성 건파열에 대한 보고는 매우 드물다.

**증례:** 58세 여자로 갑자기 발생한 왼쪽 4번째 손가락의 운동 장애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AL형 아밀로이드증으로 3년 전부터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왔다. 내원 1일전 특별한 외상 병력없이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외상 및 감염에 대한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13,530/uL, 헤모글로빈 8.6 g/dL, 혈소판 126,000/uL, 총칼슘 8.5 mg/dL, 인 3.4 mg/dL, 알부민 2.9 g/dL, C반응단백농도 6.38 mg/dL, iPTH 100.7 pg/mL였다. 근 초음파검사서 좌측 지신근의 파열이 관찰되었다. 근파열에 대한 치료로 수술적 교정을 고려하였으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내원 당시부터 소량의 혈변이 동반되어, 직장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출혈 병소를 찾지 못하였다. 내원 9일째, 출혈병소 확인을 위해 시행한 대장내시경상 간궁곡부 상부로부터 대량의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혈관조영술에서도 출혈 병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환자는 대량의 수혈 및 수액공급에도 불구하고 저혈량증 속으로 사망하였다.

**Key Words:** 자발성 파열, 아밀로이드증, 혈액투석

Spontaneous rupture, Amyloidosis, Hemodialysis